

OpenDoors

03

2023

VOL.251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북한선교현장

탈북민 수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20)"

박해와 선교현장

소말리아(Somalia)

박해뉴스

나이지리아 / 미얀마

현장스토리

공고: 박해받는 우리의 눈물을 반드시 닦아 주실 하나님

튀르키예 & 시리아 : 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오픈도어의 역할

Heart To Heart

희망의 백만기도운동 / 월도와치리스트 50일 기도

한국오픈도어 기도모임 / 희망의 선물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Ch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OpenDoors
신앙의 자유를 찾아



용서와 화해를 통한 평화와 통일

노창영 목사 (개봉교회 담임목사)

평화의 통일의 개념은 이론이나 철학이나 이념이나 신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절실히 필요한 실천의 과제이다. 이는 성경대로 수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롬5:1)이 수평적으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는 말씀의 실천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롬12:18). 평화와 통일로 가는 실천의 길은 개인, 가정, 관계, 민족, 집단, 국가의 차원에서 동일한 실천적 원리가 적용된다. 그것은 용서(forgiveness)와 화해(reconciliation)이다. 가해자의 진실한 용서의 구함과 피해자의 용서를 통하여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진다. 가해와 피해는 많은 경우에 보복의 악순환을 낳는다. 역대 모든 정권들을 기억하여 보라. 정권을 장악한 정치집단들은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고통을 주었던 선대 정권의 지도자나 선대 정권 앞에 굴복한 경제집단에게 각종 보복으로 재판정에 서게 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응징하였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정부까지 예외는 없었다.

정치인과 지도자들은 성군 다윗에게 배워야 한다. 다윗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넘어뜨려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면서 이를 질투한 사울왕의 공격의 표적이 되었고, 십여년을 사울왕을 피하여 동굴로,

들로, 광야로, 이방나라로 피해 다니며 생존한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두 번이나 포기하고 그를 용서한다. 그리고 사울왕과 아들들이 전투에서 죽자 그들을 애도하였고, 사울왕의 군대장관인 아브넬을 끌어안는다. 사울의 왕세손인 절뚝발이 므비보셋에게는 왕자의 특권과 사울의 재산을 회복시켜준다.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 때문에 피난가던 자신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하고 욕하는 사울왕의 친척 시므이마저 용서한다. 자신에게 칼을 겨누는 세째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가슴 아파 울었고, 자신의 가신이었다가 압살롬 편에 붙은 군대장관 아마사를 자신의 휘하로 끌어 들였으며, 자신을 배신한 모든 사람을 끌어안는다. 다윗왕은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고려태조 왕씨의 후손을 강화도와 거제도에서 집단학살하여 왕씨국가의 재건의 씨를 말린 비열한 짓을 하지 않았고, 현대사의 한국정치인 같은 보복정치도 하지 않았다. 모든 보복, 원한의 고리를 다윗은 자신의 대에서 끊어버렸고, 적들을 끌어안았고, 용서하였다. 다윗의 평화의 신학, 용서의 신학을 배워야 한다. 이같은 용서와 평화의 사람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나이 30세에 남쪽 유대지파와 베냐민지파의 왕이 되게 하였고, 이를 뛰어넘어 그의 나이 37세에는 열두지파를 다스리는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통치자가 되도록 축복하신다.

교회사를 보면 A.D.390년에 데살로니가에서 전차경주가 있었는데, 유력한 전차경주자가 병이 들어 출전을 못하자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켜 주둔부대의 로마 군대 사령관과 로마관리 여러 명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진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경건한 기독교도였던 로마의 데오도시우스황제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군대를 보내어 데살로니가 시민들을 원형경기장 안에 가두고 7,000명을 학살하였다. 이같은 황제의 야만적인 대학살사건을 보고 밀라노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는 황제의 수찬정지와 출교를 명령한다. 황제는 8개월간의 은둔생활과 공적인 회개, 사형판결 확정전 30일간의 사형집행유예, 죽은 자의 가족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고 해별되어 교회로 돌아올 수 있었다. 고백과 회개와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

한국교회와 민족도 북한뿐아니라 어떤 적이나 원수도 끌어안을 수 있는 용서와 화해의 마음이 필요하다. 다윗의 마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평화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심리학자 아돌프 아德勒(Adolf Adler)가 말한대로 미움 받을 용기도 필요한 것이다. 내가 상대와 화평하기 원해도 상대가 이를 원하지 않거나 나를 미워할 때, 나는 상대에게 미움 받을 용기를 가지고 대하라는 것이다. 용서는 일방적일 수 있어도 화해는 쌍방 통행적인 것이다. 화평과 화해가 이뤄지지 않아도, 미움 받을 용기를 가지고 다윗처럼 원수를 향한 용서의 신학의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 북한이나 수천 년간 원한관계에 있는 일본에게도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 이 나라들이 우리와 화평하기를 원하지 않아도 미움 받을 용기를 가지고 나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처럼 평화와 통일은 이론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실천신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개인이나 가정, 직장, 사회, 민족, 국가적 차원에서 용서와 화해를 통한 평화와 통일신학이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모든 목회자, 성도들, 그리고 북한선교나 통일에 관련된 사역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이 같은 마음으로 섬겨주시기를 기도하는 바이다.

CONTENTS

04 북한선교현장

- 탈북민 수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20)"

07 박해와 선교현장

- 소말리아(Somalia)

14 박해뉴스

나이지리아 / 미얀마

18 현장스토리

- 콩고: 박해받는 우리의 눈물을 반드시 닦아 주실 하나님
- 튀르키예 & 시리아: 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오픈도어의 역할

21 Heart to Heart

희망의 백만기도운동 / 월드와치리스트 50일 기도
기도모임 / 희망의 선물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2023년 03월호 | 통권 251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 : 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 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 김영복 목사

이사회 : 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이바울 이사

사무총장 : 김경복 선교사

개발/행정/재정/홍보/정보 : 문민환, 황자경, 배수현,

민태홍, 김하영 간사

북한선교 : 이जे나, 이다니엘, 송레아, 윤수지, 안요한,

이정현, 김안나 간사

발행처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 596-3171 / Fax.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 및 디자인 : 김셋벌

SUPPORT

<후원신청>

한국오픈도어선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과 일시후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의 '후원하기'를 이용해주세요.

*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하기를 신청하시면 '기부금영수증'은 자동발급됩니다.

<계좌이체>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후원하기를 원하시면 아래의 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셔야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지상 천국 만세!”

대사관에 들어서자마자 터져 나온 나의 고백은 “지상에도 이런 천국이 있는가!” 이었다. 넓은 방에 더위를 쫓기 위한 에어컨 시설은 기본, 춤다면 전기장판을 제공해주었으며 홀라후프나 배드민턴 등 각종 스포츠도 라오스 대사관에서 배웠다. 나름대로 운동신경이 있다고 자부했던 나는 웬만한 20대 친구들에게도 지지 않았다.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무려 5킬로 정도 몸무게가 불어났다. 매일같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원하는 드라마도 마음껏 볼 수 있었다. 자다 말고 일어나서 “나는 천국에 왔다!”는 고백이 절로 나왔다.

우리 팀 9명 모두 대사관에 안전하게 도착하였다. 당시 우리 말고도 대사관에 약 서른 명 정도의 사람이 이미 들어와 있었는데 생전 처음 보는 우리를 그들이 반겨주었다. 동병상련의 정이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에 두 명씩 식사당번을 정하여 밥을 해먹었는데 결국 북한 사람들끼리 모여 고향 음식을 해먹은 셈이 되었다. 대사관에서 있었던 시간은 나에게 참 귀한 휴식과 치유의 시간이었다. 그동안 겪었던 고난의 기억들이 그때만큼은 다 잊혀지는 기분이었다.

무엇보다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감회

가 새로웠다. 일요일이 되자 원래 있던 팀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고, 나도 함께 드리고 싶다고 하자 흔쾌히 초대해주었다. 중국에서 일할 때 교회 생활을 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처음이었다. 이 감동의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 얼마 안 있어 대표기도로 자원했는데, 그때 썼던 대표기도문은 일기에 적어서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내가 그랬던 것처럼 중국에서 또는 북한에서 고생하고 있을 나머지 영혼들을 구원해달라는 기도였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고, 기도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다. 찬양을 부르면서도 오열하듯 껴끼기 울었던 것 같다. 아직도 그때 불렀던 찬송가 “나 주를 멀리 떠났다”의 후렴부 가사가 기억에 남는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대사관에 있을 때 그 흔한 치킨을 처음 먹어보았다. 당시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대사관 직원들이 어느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리에게 치킨을 사다 주었다. 맛도 맛있었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 음식을 사러 다녀왔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감동이었다. 우리끼리 치킨을 뜯으면서 그 새로운 맛에 감탄하고 호들갑을 떨었고 나도 “김정은이 이 소식을 들어야 한다. 김정은의 자식들이 여기 와서 대접을 받고 호강하는구나”라며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우스갯소리를 하였다.

원래 대사관에서는 항상 정숙해야 하지만 그날 우리는 치킨을 처음 맛보고는 흥에 겨워 춤추며 노래를 불렀고, 웬일인지 그런 우리를 선생님들은 그저 지켜만 보고 별 말씀은 안하셨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때가 그동안 광야를 헤쳐온 것처럼 멀고도 험한 길을 거쳐 얻어낸 행복한 시간들이었고,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웃고 울면서 마음이 많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 와중에 한국행 절차가 마무리되어 대사관에 도착한 지 약 한 달 하고도 일주일 되었을 무렵에 한국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감사하게도 내가 떠나기 직전에 한국에서부터 팀이 와서 겨울 대비 새 옷을 나누어 주었다. 해가 진 깜깜한 밤중에 나를 포함한 탈북민 몇 명과 대사관 직원 몇 명이 다 같이 공항으로 이동을 하였다. 난생 처음 타는 비행기는 참 신기했다. 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았다. 잠시 눈을 붙이고 일어나니 인천에 도착해 있었고, 정장 입은 남자들을 만나라는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우리를 맞이하는 사람들을 따라갔다. 그들을 따라 버스에 탑승하여 가장 먼저는 병원에 도착하였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진행하는 와중에 나도 몰랐던 결핵을 발견했다. 나는 그 당시 결핵에 걸리면 죽는 줄 알고 큰 충격에 휩싸였다. 국정원으로 이동하여 1인실에 격리되었는데 도착하자마자 직원들에게 울면서 하소연했다. '왜 나는 탈북하고도 이런 병에 걸려서 죽는 날을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결핵은 죽는 병이 아니고 치료를 하면 다 나을 것이라고 위로해 주

었다. 그 말을 듣고서 안심은 했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처럼 단체 활동을 못하고 혼자 격리되는 것이 너무나 서럽고 외로웠다. 내가 지냈던 1인실 복도에는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하루 세 끼 따듯한 밥과 반찬이 배식 되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결핵을 치료하던 때는 행복하지 않고 힘들었던 기억이다. 함께 한국으로 왔던 팀원들은 이미 검사가 끝나고 하나원으로 이동했는데 나만 뒤쳐지는 느낌도 들었다.

몇 주의 치료와 조사 이후 마침내 하나원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하나원에서는 단체생활을 하며 약 3개월 동안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듣는데 그 시절은 나에게 참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다. 하나원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중국말밖에 모르는 어린 남자아이의 임시보호자 역할을 자원해서 맡았다. 같은 방에서 자면서 아이를 돌봐 주고 숙제를 봐주는 역할이었지만, 은근히 할 일이 많았다. 옷도 세탁해서 입히고 남들 자는 시간에 깨어서 공부를 도와주는 일이 보통 피곤하고 귀찮은 일이 아니었다. 역시 책임감이란 막중한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복에 두고 온 아이들이 생각나 마음이 복잡했다.

하나원에서는 북한 사람들의 종교에 따라 불교, 천주교, 기독교 중 선택하여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는데 기독교인 숫자가 눈에 띄게 많았다. 아무래도 탈북하는 과정에서 성경공부를 도와주는 선교사님들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 주일마다 큰 교회에서 봉사를 와서 좋은 간증과 말씀을 해주시고 또 끝날 때 즈음에는 음식을 나누어 주셨다. 하루는 내가 좋아하는 마른 오징어를 교회 팀이 가져와서 참 기뻐었다. 교회 팀을 통해 찾고 싶은 사람을 설명하면 그 사람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찾아봐 주기도 하는데 이 기회를 통해 내가 중국에 있었을 시절 복송되기 직전에 일했던 회사 부장님과 연락이 닿았다. 그 때 참 놀랍고 반갑고 감사한 만감이 교차했다.

하나원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기독교 도우미 책임자 역할을 자원하여 맡았다. 믿는 사람들을 책임지고 관리



<前 주 라오스 한국 대사관>

하는 역할이었고 구체적으로는 목사님을 대신하여 새벽기도를 인도하고 주일 예배를 위한 찬양과 율동 연습을 총괄하는 역할이었다. 내가 책임자를 맡은 이후로 찬양과 율동이 아주 잘 연습 되어 있다며 목사님이 감탄하셨던 것이 기억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고 뽐낼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은 것 같아 뿌듯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열병식에서 퍼레이드를 하기 위해 준비 중인 북한 여군들 (RFA)>

공교롭게도 내가 교화소에 있었을 때 총을 들고 나를 지켰던 여자 초병이 하나원에서 같은 기수로 들어와 있었다. 그 친구는 나이가 어린 아가씨였는데, 그 친구를 처음 알아보았을 때 온갖 감정이 교차했다. 교화소에서는 군인과 죄수의 입장에서 내가 도주라도 하면 총을 겨누었을 그런 관계였지만 하나원에서는 그저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것이 참 이상했다. 그 친구는 예뻐장하면서도 내성적인 친구였다. 내가 그 친구를 보는 순간 “야 너 교화소에서 초병하지 않았어?”하고 묻자 매우 쑥스러워 하였고, 이후로 나를 피해 다니는 느낌이 들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친구가 교화소 초병을 했었다는 이유로 왠지 불편해 하며 잘 끼워주지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그 친구는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위축되고 경직되는 것 같았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나 또한 이 친구를 용서하지 못했을 지도 모른다. 교화소에서 이 친구와 같은 군인들로부터 인권도 없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생활했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따뜻한 사랑과 용납을 경험한 이후로 나는 이 친구와

같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생겼다. ‘이 친구는 그저 그 당시에 군복무를 했었을 뿐이고 이 친구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마음도 들었다. 마냥 서로를 피해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하여 어느 날 그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함께 기독교 도우미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알고 보니 이 친구는 중국에서 성경공부를 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또 예수님을 영접했던 기억이 있는 친구였다. 그 친구는 선뜻 그 제안을 받아 들였고 그 이후부터 토요일마다 함께 연습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다 보니 노래뿐만 아니라 기타와 같은 악기 연주도 곧잘 했다. 이 친구가 기독교 도우미가 된 이후부터 활발하게 하나원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를 뿌듯함이 느껴졌다.

라오스 대사관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 이후 국정원을 거쳐 이렇게 하나원 생활을 하는 기간은 나에게 꿈만 같았다. 회복이 있었으며 묶인 것이 풀리는 은혜가 있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여정의 마지막 종착점에서 비로소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웠던 신앙의 공동체에 온전하게 속하여 그 첫 뿌리를 잘 내리도록 이끄신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드린다.

끝

그동안 “신앙의 자유를 찾아” 탈북민 수기를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북한선교를 향한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3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기독교 박해지수

2 위

소말리아 (Somalia)



폭력과 압력의 수준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별 박해지수 총합은 100점이다 (16.7 X 6개 영역 = 100).

주목할 만한 점 (Key findings)

소말리아의 기독교인들은 현재 극심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은 알샤바브(al-Shabaab)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에게 노골적으로 표적이 되고 있고 보통 발각되는 즉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알샤바브는 폭력적인 비정부 활동가이면서 이슬람교 와하브파의 교리를 지지하는데, 그들은 샤리아법을 소말리아의 생활 전반의 기반을 삼고자 옹호하고 나라에서 기독교인을 완전히 근절하고자 하는 갈망을 내비쳤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가족과 공동체에 의해 종교

적 자유에 대한 침해를 겪고 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가족과 씨족에 대한 배신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로의 개종을 의심받는 것조차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의 위험입니다. 근래 몇 년 동안 이슬람 무장조직들이 기독교인, 특히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나라의 비교적 상황이 낫다고 여겨지는 소말릴란드에서는 의심을 받는 이들은 개종을 혐의로 구금되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Somalia)



국가 정보

지도자 : 합자 압디 바레 총리

인구 : 16,842,000 명

기독교인 수 : 수백 명 (오픈도어 추정)

주요종교 : 이슬람교

정부형태 : 연방 공화국



국가 상황

종교	신자 수	비율
기독교	수백 명	-

소말리아는 실패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으며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국가들 사이에 남아 있습니다. 1991년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 대통령 군사 정권의 전복 이후 혼돈의 시간은 샤리아 법원과 알샤바브와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의 부상과 함께 극에 달했습니다. 국가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 씨족과 씨족에 기반을 둔 민병대의 대결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안정된 정부를 구성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부장적인 문화 가운데서 오로지 30%의 아이들만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그중 여자 아이들은 40% 뿐입니다. 여성 할례라는 관행은 상처와 감염으로 인한 심신 악화로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 두게 만들고 조혼은 곧 여자 아이들의 교육이 비정상적으로 일찍 끝나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2년 헌법은 이슬람을 국교로 명시하고 샤리아 법에 지배권을 부여했습니다. 타 종교가 전파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대부분(99%)의 인구는 수니파 이슬람교이며 기독교인은 문화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되고 알샤바브 및 다른 극단주의 단체들에 의해 '주요표적'로 인식되고 있

습니다. 이들에게는 일상 생활이 도전입니다. 기독교인 것이 알려지면 남성은 사업이 불매운동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거나 살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성도 성폭력, 강제결혼 뿐만 아니라 살해의 위협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를 떠나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목숨을 잃는 일은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역별 상황

기독교인들에게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알샤바브의 통제 하에 있는 지역에서 가장 많이 위협에 노출됩니다. 그 지역들은 키스마요, 자마애매, 마르카, 엘허 근방의 지역들을 포함해 남쪽 및 남서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소말릴란드와 펀틀랜드와 같은 북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폭력에 대한 극심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박해받는 성도

-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

무슬림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기본권에 대한 가장 심한 정도의 침해를 겪으며 알샤바브에 의해 '주요표적'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까지의 역사 이래 개종자들 또는 개종자라는 비난을 받은 이들은 발견되는 즉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 국외로 추방된 기독교인 공동체

- 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박해와 차별의 주된 요인

이슬람의 탄압

이슬람 무장조직들은 많은 지역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기독교 개종자로 의심받는 소말리아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국가가 정부를 안정시키고 합법적인 정부를 만들려 시도할수록 정치 지도자들과 국가 관리들은 샤리아 법의 엄격한 해석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씨족의 탄압

소말리아의 사회는 강력한 씨족 정체성에 기반하는데, 이는 무슬림이 되는 것과 아주 많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과 씨족 지도자들은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배신으로 간주합니다. 그 결과, 기독교인은 발각되면 즉각적인 폭력의 극심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조직화된 부패와 범죄

범죄자들은 소말리아의 무법 상태에서 이익을 봅니다. 그들은 불법 통상으로 연결망을 통해서 일하고 알샤바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카르텔이 벌어들인 돈은 무기 구매 및 기독교인들과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에 쓰일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독재 정치

소말리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정부의 억압에 직면합니다. 정부는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말리아(펜틀랜드, 소말릴란드, 소말리아) 정부는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박해 상황 차이

여성

기독교로 개종한 젊은 여성들은 가장 취약한 이들 가운데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의심을 받는 여성은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엄격한 가택 연금, 강간, 납치, 이슬람 극단주의 지도자와의 강제결혼, 그리고 살해를 당합니다. 기혼 여성은 이혼을 당할 가능성이 높고, 아이들은 빼앗겨 이슬람 방식으로 양육됩니다. 기독교인 여성들은 남편이 수감되거나 살해당하면 남자 친척들에 의해 성적 학대를 당하거나 가정은 빈곤에 처하게 됩니다.

- 납치
- 기독교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 제한
- 사회적 공동체 / 연결망 접근 제한
- 자녀 양육권 제한
- 교육을 통한 차별과 괴롭힘
- 강제적인 종교 복장 규정
- 강제 이혼
- 강제 결혼
- 강제 추방 (마을 / 국가)
- 가족에 의한 감금 / 가택 연금
- 폭력 - 살인 /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남성

소말리아는 높은 사회적 통제의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 의심되는 소말리아 남성은 기본권에 대해 극심한 침해를 겪습니다. 그들은 언어 폭력, 신체적 폭력, 사업 탈취, 수감, 심한 위협, 고문, 납치, 그리고 살해의 위협에 처합니다. 남성은 종교적

문제 있어서 가정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압박을 받고 가족 구성원이 개종하면 지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개종자들을 포함해 젊은 남성들을 강제적으로 이슬람 부흥 센터에 보내 알샤바브의 민군으로 훈련되게 합니다.

- 납치
- 기독교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 제한
- 강제적인 종교 복장 규정
- 정부에 의한 감금
- 군대 / 민군 징집 / 양심에 어긋나는 복무
- 폭력 - 살인 / 신체적

소말리아 기독교 박해지수 5년 동향

연도	오픈도어 기독교 박해지수 순위	박해점수 (100점 만점)
2023	2	92
2022	3	91
2021	3	92
2020	3	92
2019	3	91

소말리아 점수 전반은 비록 폭력 점수에서 0.2 증가했지만, 극심한 수준에서 다소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슬람 극단주의 군사들에 의해 살해당하고, 씨족 지도자들, 연장자들, 그리고 가족 구성원은 기독교 개종자로 의심되는 이들의 움직임을 감시합니다. 2023년 기독교 박해지수 보고기간 동안 정치 영역은 더 악화했는데, 이것은 부족 지도자들의 의견충돌, 권력을 쥔 정부, 야당 당수들, 선거 시행에 대한 국제사회로 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의 정권 장악이 초래한 결과처럼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의 사기를 높였습니다.



보고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 (2021.10.01 - 2022.09.30)

보안 문제로 구체적인 상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개인 생활

기독교 관련 자료를 소유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성경 또는 다른 기독교 관련 출판 자료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발각되면 당사자는 친척들과 공동체의 허락 하에 처형당하게 됩니다. 개종자로 의심을 받으면 가혹한 결과를 각오해야 합니다. 개종자들은 가족들에게 마저 자신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을 숨겨야 합니다.

가족 생활

소말리아 사회는 아이들이 무슬림이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자녀들을 기독교인으로 양육하는 것은 극심하게 어렵고 부모가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씨족 중 극단주의 구성원들의 공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마드라사(이슬람교 교육기관)를 다니고 이슬람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공동체 생활

소말리아 사회는 보수적이고 이슬람교의 가르침은 모든 거주민들에게 부과되어 있습니다. 무슬림 배경을 가진 기독교 개종자들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의해 계속해서 압박 받고 감시를 당합니다. "신실한 무슬림 신자의 태도"에서 이탈하면 기독교 단체들에 대해 폭력적인 공격을 가하는 알샤바브와 같은 단체들에게 보고 당할 수 있습니다.

국가 생활

소말리아 정부는 헌법이 이슬람부터 개종을 금지하기에 기독교인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아주 많이 제한되었습니다.

교회 생활

기독교인들은 교회 재건축을 고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모가디슈에서 가톨릭 교회를 다시 열고자 시도했지만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르게이사에서도 가톨릭 교회를 다시 열고자 했지만 대중의 항의와 반감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소말리아 내 비공식적인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가정교회) 것에 대한 감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침해

소말리아는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아래의 국제적 조약에서 약속했습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2.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3. 고문방지협약 (CAT)
4. 유엔 아동권리협약 (CRC)

** 소말리아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14조. 양심과 종교의 자유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우리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유보하고 있습니다.*

소말리아는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자주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의 국제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기독교 개종자들은 개종한 것이 발각되거나 단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서 즉시 죽임을 당합니다. (ICCPR 6조)
- 기독교인 부모들은 자신의 종교적 가치에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습니다. (ICCPR 18조, CRC 14조)
- 모든 소말리아인들은 무슬림이 되는 것이 당연시되고 이슬람을 떠나는 것은 금지됩니다. (ICCPR 18조)
- 여성 개종자들은 강제결혼을 당하고 믿음을 버리도록 압박 받습니다. (ICCPR 23조, ICESCR 10조)



이외 소수 종교 집단의 상황

소말리아에서 수니파 이슬람교 이외에 그 어떠한 종교 집단도 정당한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하카트 알사바브에 의해 통제된 지역들은 시아파 이슬람교도들도 눈에 띄지 않게 주의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온건 수니파도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소말리아의 법은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를 전파하는 것, 무슬림이 이슬람을 떠나거나 개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은 모든 법이 샤리아의 일반 원칙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니파 이슬람교 이외에 다른 종교는 가혹한 도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소말리아 오픈도어 사역

오픈도어는 1990년대부터 소말리아의 기독교인들을 지원해왔습니다. 저희의 비전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가운데서 신앙이 성숙해지고 양육하는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저희는 제자훈련을 가능하게 하고 극심한 박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통해 이 비전을 이루어 내고자 합니다.

나이지리아 - 아유바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친구 추가하시고 매주
전세계의 기독교 박해뉴스를 받아보세요.

아유바는 보코하람(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이 그가 살고 있는 마을에 침입한 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오후 6시 즈음에 보코하람이 저희 마을로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가 퍼졌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다시 나가보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저에게 집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 되지 않아 사태는 악화되었습니다. 얘기가 퍼진지 몇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보코하람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보통 총소리가 한번 들리면 군인이고, 총소리가 빨라지면 보코하람인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어요. 그때 저희는 총소리가 한 번만 들려서 군인인 줄 알고 집에 머물었어요. 오후 10시가 되자, 보코하람은 저희 마을에 도착했고 사람들은 목숨 걸고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이웃 중 한 명은 저희 집으로 건너왔어요. 그는 저희들이 군인이 아니라 보코하람이라는 사실과 그들이 불을 낸 건물 밖에 서있던 남자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어요.” 아유바와 그의 형제, 자매들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목숨 걸고 도망쳤어요. 저희는 마을 뒤에 있는 강을 건널 때까지 달렸어요.” 아유바는 아버지가 뒤따라오고 계시길 바랐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유바와 그의 형제, 자매들은 마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함께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울음이 터졌어요. 하지만 저희와 함께 있던 한 사람이 저를 위로해 주면서 울음을 그치고

기도하라고 말해 주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울음을 그치고 기도하자고 말했어요. 저희는 기도를 마치고 아침이 될 때까지 강기슭에서 잤어요.” 아유바의 아버지는 처음에 형수님 집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아유바가 속한 공동체에는 기독교인들도 많지만 무슬림도 많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초혼에서 온 이복 형제, 자매들, 그리고 어머니의 자매와 할머니도 모두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보코하람이 아유바의 아버지가 숨어 있던 집에 난입했을 때 그는 그들이 추려낸 기독교인였습니다. 아유바는 이후에 친척들에게서 들은 바를 얘기해 줬습니다. 무장 세력들은 아유바의 아버지가 무슬림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코란의 한 구절을 읽도록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슬림인지 기독교인인지 물었을 때, 아유바의 아버지는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아유바의 아버지를 참수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아유바와 동행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상태로 마을에 돌아 갔습니다. “사방이 고요했어요. 저는 집에 가까이 왔을 때 땅에 시신 3구를 보았어요. 저는 아버지를 의상으로 알아볼 수 있었고 아버지 곁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그 비통한 순간 속에서도 아유바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아버지를 주시고 또 다시 데려 가심에 감사해요. 아버지가 당신과 함께 편

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아우바의 고백은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하고.” 말씀처럼 욥의 고백을 생각나게 합니다. 보코하람이 마을에서 죽인 사람은 아우바의 아버지만이 아니었습니다. “9명이 살해당했고 그들은 모두 기독교인이었어요. 저는 안에 들어가 시신들을 덮어줄 옷감을 가져왔어요. 저는 형제에게 형제, 자매들을 이쪽으로 데려오지 않도록 부탁했지만 그들은 따라와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 역시 옆에 같이 서있다가 눈물이 터졌어요.”

하지만 위협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우바는 그와 가족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으로부터 극심한 위협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격 이후 몇 주가 지나고 나서 보코하람은 저희 마을에 처형 목록을 보내왔는데 거기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아우바는 그의 아버지를 묻은 곳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하기 위해 칼을 지니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보코하람에게 표적들의 신분을 확인시켜준 남자를 죽이고자 단단히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우바는 결국 자신과 가족을 위해 다른 마을로 이사하는 것이 가장 나은 선택임을 받아 들였고 이후에는 현지 목사님께서 그와 형제, 자매들이 마을에서 차로 8시간 거리의 남쪽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더불어 목사님은 샬롬 센터에서 오픈도어 파트너들을 통해 아우바가 외상 치료 (trauma care)를 받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아우바는 박해가 젊은 성도들의 믿음에 특히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나이에 아버지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는 공동체의 젊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많은 책임을 지어야 했고 그의 삶은 또래들의 삶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가정의 생계비를 벌어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박해는 이들이 따라가고자 하는 길을 결정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비를 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지면서 젊은 이들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 힘들어 상대적으로 쉬운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외상 치료는 젊은 이들이 박해 상황에 직면하더

라도 치유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아우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청소년을 위한 외상 치료를 받아본 적이 있어서 이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센터에서 3일을 있으면서 저만 이런 상황을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죽임을 당하거나 이외에도 많은 이것 보다 더 심각한 일들을 겪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우바는 외상 치료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용서” 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상담 이전에 그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로 단단히 결심했는데 외상 치료 센터에 있으면서 그가 지니고 다녔던 칼을 반납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는 아버지의 원수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복수하기로 마음먹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람과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제가 칼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복수를 쫓고, 계속 상처받고, 마음의 평안이 하나도 없다면 제가 얻는 것은 무엇일지 스스로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저의 분노를 내려놓고 평안을 가지기로 결심했어요. 하나님은 저를 치유하기 위해 이곳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샬롬 센터에서 오픈도어 파트너들이 제공하는 지원은 아우바의 삶에 큰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틀렸을 때는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인생에 대한 진실을 얘기해주며 유익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것은 중요해요. 아니면 오직 복수만을 생각했을 것이지만, 바른 조언을 해주는 사람과 함께하면 치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준 저희 목사님께 대단히 감사드려요. 솔직한 심정



으로, 이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저는 어떤 끝을 맞이하게 됐을 지 몰라요.” 보코하람은 아유바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창세기 50장 20절 기록된 바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고백한 것처럼 보코하람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아유바의 믿음은 외상 치료를 거쳐서 더 강해졌습니다. 오픈도어 파트너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유바는 외상으로 인해 길을 잃은 젊은 이들 중 한 명이 되었을 거예요. 오히려 그와 비슷한 외상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기도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해주고 싶어요.” 아유바는 하나님께서 시편 91편 “천 명이 네 왼쪽에서, 만 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하지 못하리로다” 말씀을 통해 더 자주 기도하도록 도우시고 큰 격려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아유바는 전 세계 교회공동체 가족들에게 계속 중보 기도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저희가 사탄에게 이용당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나이지리아, 특히 북부 지역에서 일어나는 테러

가운데 있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멈추게 해 주시길 함께 기도해 주세요.” 끝으로 그는 외상으로부터 회복되도록 도와주신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그대들 덕분에 저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있어요. 저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복수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용서했어요. 저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방법을 배웠어요.”

기도해 주세요

- 나이지리아의 박해에 취약한 기독교인들을 보호해 주시고 국가 내에서 자행되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폭력이 종식되도록
- 나이지리아 교회들의 믿음이 깊어지고 자라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 박해받는 청소년과 젊은 이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지혜, 사랑, 그리고 제자도가 있는 공동체를 만날 수 있도록
- 살롬 센터 및 다른 외상 치료 센터에 있는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고 더 많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외상 치료를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미얀마 - 폭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다



정부 군대와 시민방위군(PDF) 사이에 내전은 미얀마 국민들의 삶을 극도로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중 기독교인들은 이미 존재하는 차별과 지배적인 반기독교 정서로 인해 더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전 지역에 휘말린 마을에 거주하는 몇몇의 기독교 가정들은 평화로운 곳으로 이주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새로운 곳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원래의 낯고 안전하지 않은 원래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오픈도어 파트너들은 폭격과 충격이 만연한 지역에서 5살 아이를 포함한 가족과 함께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30세 여성 에스더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마을에 자택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매일 발생하는 폭격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어서 저와

남편은 다섯 살 된 아이와 함께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피신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이미 몇 달 전에 그곳으로 이주하셔서 저희도 근처에 정착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마을에서의 삶은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일자리도 없고, 가족을 위해 기본적인 끼니를 마련할 방법도 없었어요. 남편은 매일 일용직을 알아보러 다녔는데, 가끔은 일을 구했지만 다른 날은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돈을 벌어난 날에도 가장 많은 게 1달러가 조금 넘는 정도였어요. 계속되는 내전으로 인해 물가가 올라서 이 돈은 하루 제대로 된 식사를 마련하기에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저희는 그곳에서 잠시 동안 있으려고 했지만 돌아야 하는 다섯 살 아이가 있었고 저희 소득은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에 결코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돌아와서는 저희와 같이 다른 곳에서 정착하지 못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갔어요. 저희를 지켜줄 폭격대피소를 만들고 가능한 집 밖을 나가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오늘도 폭격의 위협은 항상 닥쳐올 것만 같지만, 최소한 아이와 저희 부부가 먹을 수 있을 만큼을 벌고 있어요. 남편은 이 마을에서 일용직으로 일할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었어요. 저도 어린 아이들에게 과외를 해주며 생계비에 보태고 있어요. 아이들의 과외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가정들이 많아요,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알기에 저도 아이들을 그냥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희가 다시 내전 지역으로 돌아온 이상 폭격 속에서 살아남을 수도,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계속해서 구할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 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알 때 저희는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에스더는 솟아나는 눈물을 참으면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상황들이 힘들어요. 저희 아들은 폭격과 총격 소리를 들으면 저에게 바로 달려와서 지켜 달라고 해요. 가끔은 이런 상황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어요. 최근에 집 근처에 폭발이 발생해 큰 폭탄 소리를 들었어요. 저희 집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지만 침대에 누워 곤히 잠든 아들을 보면서 혹시 폭탄이 저희 집에 떨어졌으면 어떠했을까 생각하며 조용히 울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는 아이를 한 명 더 갖고 싶었지만 현재 상황으로 인해 바짝 경계하며 언

제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이를 갖지 않을 계획이에요.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얘기를 입밖으로 꺼내 본 적은 없지만, 저는 가끔 하나님께 이런 상황들에 대해 질문하곤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계획이 있으신 것을 알아요. 저희를 더 겸손하게 하고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그분을 의지하도록 만드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과 오픈도어에게 정말 감사해요. 작년에 저희에게 먹을 것이 바닥났을 때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고 생계 수단으로 새끼 돼지 10마리를 주셨는데 저희 집 근처에서 발생한 폭발이 만들어낸 매연으로 새끼 돼지 7마리가 죽는 바람에 저는 비참하고 희망이 꺾이고 너무 우울했어요. 이제 3마리만 남았고 저희는 이 새끼 돼지들이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어요. 하지만 먹을 것을 충분히 주지 못할 때도 있어서 매우 힘들어요. 이러한 여러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시민방위군이 정부 군대를 공격하면 군대는 또 다시 복수를 해요. 모든 폭격과 총격 가운데서 저희 민간인들은 너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요. 최근에는 저희 집 근처에 사는 남자가 폭격 속에서 한 쪽 팔을 잃었어요.”



기도해 주세요

- 미얀마의 내전지역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음식, 피난처, 평화가 지속적으로 주어지도록 기도해주세요



콩고 - 박해받는 우리의 눈물을 반드시 닦아 주실 하나님

오늘도 진 목사님은 과거에 겪은 충격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앞에 굳건히 서서 설교합니다. 그가 다시 성도들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겨우 33살 밖에 되지 않은 이 성직자는 그 나이대의 대부분 목회자들 보다 더 많은 비극을 목격하고 겪었습니다. 그는 2019년에 북키부주의 베니에서 성도들을 섬기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곳이 적들에게 인도하는 문임을 경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콩고의 북동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알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진 목사님은 낙관적이었고 그의 양떼를 섬기기 위해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 6월 30일, 모든 것은 갑작스럽고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ADF(콩고민주공화국동부 북키부주, 고마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는 진 목사님이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을 섬기기 위해 사역하던 지역 인근을 공격했습니다. 진 목사님의 집은 교회 부지 한 가운데 있었고 한 쪽은 건축 중인 교회 건물, 그리고 다른 한쪽은 학교가 있었습니다. 공격자들이 무자비하게 마을을 뚫고 들어

오는 가운데 이웃들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진 목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우소서.” 진 목사님은 그 때부터 총성이 끊이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목사님은 그들이 사람들에게 큰 고통과 파괴를 가하는 것 이외에도 그와 함께 가톨릭 신부 한 분을 잡으러 왔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집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다투면서 문을 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문 반대편에는 진 목사님이 그의 아내와 2살된 자녀, 그리고 6개월 된 자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른 두 아이들은 다른 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공격자들 중 한 명이 집으로 침입하는 것을 만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세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하나님께 속삭였어요. ‘하나님, 이제 저희의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지만 금방 또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저와 가족이 늙어서도 우리의 생을 다할 때까지 당신을 위해서 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제 막 사역을 시작했는데 저 보고 가라고 하신다면 저를 통해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영혼들은 구원을 받은 것인가요? 당신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셨어요. 당신의 뜻을 이뤄주세요.’ 그들은 로켓을 발사했고 저희는 지붕 위에서 모래알 같은 소리

를 들었어요. 귀는 울렸고 저희는 45분 동안 의식을 잃고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있었어요. 밖에서는 충격이 계속되었어요.” 마을은 오후 11시부터 이른 아침 시간까지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날 15명이 죽임을 당했고 그중 최소 6명은 교회 성도였습니다. 최소 20명, 그리고 그 중에는 특히 어린 소녀들이 실종되었습니다. 그들이 목사님과 신부님을 쫓은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 목사님은 이전 교회 지도자들의 경우를 생각하면 납치하고 몸값을 요구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진 목사님과 가족들은 이 사건에서 신체적인 피해 없이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정서적, 심리적 고통은 깊었습니다. “제 아내는 겁을 먹으면 기절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저희에게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저희는 이전과 같지 않은 교회에도 가고 싶지 않았어요. 계속되는 불안감으로 출석률은 떨어지고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로 오지 않았어요. 긴장감이 맴도는 분위기 속에서 아내는 고혈압을 앓게 되었어요. 저희의 건강은 망가졌고 모든 실패를 안은 채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았어요. 영적으로도 모든 것이 힘들었어요.” 진 목사님은 엄청난 죄책감을 안고 있습니다. 그는 그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왜 죽음 당한 그의 6명의 성도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는지 생각합니다. “저희는 더 이상 스스로 설교를 할 수 없어 다른 이에게 부탁해야 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무너졌어요. 저는 제 자신을 돌봐야 할 만큼 힘이 없어서 장례식마저 참석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역자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서서히 회복시켜 주고 계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걱정은 아내의 건강입니다. “아내는 특히 혼자 집에 있을 때 이 일들을 잊어버리는 것을 힘들어해요. 그리고 그들이 여기서도 아내를 찾을까 두려워해요.” 진 목사님도 가끔은 두렵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를 감싸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두려움과 끝을 내려고 분투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지속되면 저는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얘기해요. ‘아버지, 제가 지난 일을 잊어버리고 당

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받아주세요.” 고통의 시간들 가운데서 진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 받았습니다. 특히 율기를 읽을 때 더 그렇습니다. “율기는 저에게 용기를 줘요. 저는 율이 겪은 고통의 정도는 아직 느껴보지도 못했어요. 율은 그의 자녀들을 다 잃었지만, 저에게는 아직 자녀들을 남겨 주셨어요.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저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셨어요. 히브리서에는 칼과 돌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들은 믿음의 싸움에서는 승리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스테반과 같은 믿음처럼, 저희의 믿음도 이와 같은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또 저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박해받은 저희의 눈물을 반드시 닦아줄 거예요. 칼에 죽임을 당하고, 불과 사자 굴에 던져진 저희의 형제들처럼...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견고히 서있었어요. 저희도 그들처럼 믿음 안에서 인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이 모든 것에 끝이 오고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 진 목사님과 가족들은 조금 더 조용한 지역으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현지 교회를 회복시키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다른 곳에 있는 목사님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완전히 회복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저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고 이 기도의 힘은 계속해서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 하나님께서 콩고 북부 지역에서 양떼를 섬기는 목자들의 사역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 하나님께서 진 목사님의 교회를 지켜 주시고 돌보아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덮으시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기도로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튀르키예 & 시리아 - 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오픈도어의 역할

튀르키예에 있는 한 오픈도어 교회 파트너는 하타이주에 있는 한 도시에 다녀왔습니다. “도시 전체가 완전히 파괴되어 무너짐의 정도를 파악할 수도 없어요. 모든 건물이 붕괴되고 지진 이후에 모든 전기와 수도는 끊겼어요. 여기 사람들은 물이 필요하지만 길들이 다 막혀서 저희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는 사망자들이 무너진 건물 아래서 발견되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어요.” 현지 교회 파트너 안나도 하타이주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할 수 있는 한 돕고자 했습니다. “모든 집들이 파괴되었어요. 저희는 큰소리로 집에 남은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부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상황이 정말 안 좋아요. 저희는 구조대를 돕고 있는데 땅 밑에 시신들이 많이 있어요. 이곳은 안전하지 않아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과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시리아의 상황도 거의 같았습니다. 현지 파트너 직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레포 지역에서 죽음을 연상시키지 않는 곳이 없어요. 도시의 일부 지역에서는 10년의 걸친 전쟁 가운데서도 남아 있던 것들이 파괴되었거나 이제 무너지려고 해요.” 이러한 대대적인 파괴 가운데에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상황을 잘 살피고 교회가 이웃과 공동체를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모두 기독교인이 박해를 당할 수 있는 곳입니다. 튀르키예는 2023년 기독교 박해지수(World Watch List) 41순위로 기독교인은 차별을 경험하고, 외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

다. 이곳의 이란, 아프가니스탄 기독교 난민들은 기독교인으로서 계속 압박을 받고 동시에 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한정적입니다. 시리아는 2023년 기독교 박해지수(World Watch List) 12순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장기간의 내전과 이슬람 국가 단체들과의 갈등, 그리고 최근 튀르키예와의 소규모 접전들 가운데서 여전히 계속해서 자신들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시리아의 기독교인들도 그들의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학대를 당하거나 탄압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해도 그들의 이웃사랑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픈도어의 지원과 함께 이곳의 교회와 지도자들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어둡고 캄캄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희망센터들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돌봄을 위한 최전방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 직원 레일라는 희망센터가 된 교회들과 수도원들이 벌써 수천명을 위한 지원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강진 사태에서는 희망센터들이 피해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고 수용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희망센터들은 이 추운 날씨에 사람들이 와서 끼니를 채우고 따뜻하게 앉아있으면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레일라는 오픈도어의 도움을 통한 교회 파트너십이 없었다면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튀르키예에서도 오픈도어 파트너들은 그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하타이주에서 물, 음식, 이불을 나눠주고 마을에 있는 가족들에게 당장에 필

요한 것들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지진의 진앙지와 더 가까이 있는 튀르키예 사역 파트너들과는 지역 휴대폰과 인터넷 상황 문제로 연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튀르키예에 있는 파트너 안나는 아다나주의 도시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해요. 음식도, 온기를 채워줄 것도 없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해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저희는 최선을 다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어야해요. 그것이 필요해요." 오픈도어의 현장 파트너들은 지속적인 긴급지원 요청에서 더 나아가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기도제목을 나눠줬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 교회 지도자들에게 위기관리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똑같이 지진의 영향을 받은 이들을 돌보아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 지진의 피해를 입은 이들을 돕고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막힌 길들이 다시 열려서 더 많은 도움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사태로 인해 의심을 갖게 되고 절망의 끝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이것은 시리아에게 또 한 번의 위기입니다.
- 공동체들을 섬기고 있는 오픈도어 파트너들과 현지 직원은 수면부족으로 인한 탈진에 가깝고 스스로도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희망센터들은 상실을 경험한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에 의해 운영되고 지원되고 있으며 튀르키예는 지진으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에 의해 지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회복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Heart To Heart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오픈도어 기도모임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3장 3절)



매주 화요일 저녁 7:00-8:30 오픈도어 온라인 기도모임이 진행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전세계 받게받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위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참여하기 희망하시는 분들은 한국오픈도어선교회 모바일번호로 문자를 남겨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메시지를 남겨 주시면 매주 기도모임 온라인 참여 링크를 보내 드립니다.

*모바일번호: 010-7548-3171

*카카오톡 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QR코드 스캔)



희망의 백만기도운동

(시리아와 이라크를 위한 기도 챌린지 40RTY)



기도꾸러미를 신청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픈도어는 내전으로 인한 중동 교회의 위기 속에, 특별히 시리아와 이라크의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돕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 동안 '중동에 희망을'(H4ME: Hope for Middle East) 글로벌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동 땅에 많은 변화와 희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리아-이라크를 포함한 중동에는 여전히 희망이 필요합니다. 중동 전역의 교회 지도자들은 "중동 교회와 사회는 희망이 필요합니다."라고 외치며 한 목소리로 전세계 교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도어 선교회는 중동에 희망을 가져올 새로운 캠페인을 진

행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백만기도운동은 전세계 교회들과 성도들이 중동지역 교회에 마지막까지 희망을 전달하는 기도에 동참함으로써 그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고 희망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전해주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오픈도어와 함께 중동교회와 성도들에게 희망을 전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오픈도어 선교회(02-596-3171) 또는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www.opendoors.or.kr) 캠페인후원을 통해 신청해주세요.

월드와치리스트 50일 기도

(기독교 박해지수가 높은 50개 나라를 위한 기도캠페인)

이제 한국교회는 세계속에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우리 민족 북한이 가장 박해받는 나라 순위 1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의무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그들과 함께 서서 함께 울고, 함께 고통을 나눠야 할 중대한 시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오픈도어에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 [50일 기도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기도 책자는 오픈도어 선교회(02-596-3171)로 신청하시거나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www.opendoors.or.kr)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0일 기도 책자] 이렇게 사용해주세요

1. 소그룹에서 항상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2. 기도하는 나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기독교 박해지도를 확인해 보세요.
3. [50일 기도 책자]를 소개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권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그 나라 전체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오픈도어에서는 조금 더 좋은 정보와 필요한 정보들을 선교를 위해 힘쓰는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단체, 또한 함께 물질과 기도로 섬기는 선교 동역자님들과 나누기 위해 많은 자료를 개발하여 함께 정보교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전달/훈련

- 선물1. 박해지역 성경전달-오디오/디지털 성경포함 6\$(7,000~)
- 선물2. 박해지역 제자훈련-SSTS세미나 등 20\$ (30,000₩ ~)
- 선물3. 박해지역 목회자훈련/컨퍼런스 20\$ (30,000₩ ~)



생계지원

- 선물4. 이슬람 박해지역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5. 탈북자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6.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40\$ (50,000₩ ~)



여성,어린이 케어

- 선물7.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지원 40\$(50,000 ₩ ~)
- 선물8.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교육과 생계지원 40\$ (50,000₩ ~)
- 선물9. 박해지역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지원 20\$ (30,000₩~)



난민/투옥자/파괴된 교회 지원

- 선물10. 박해로 인한 크리스천난민 구호, 지원 50\$ (60,000₩ ~)
- 선물11. 박해피해 크리스천 법률지원 50\$ (60,000₩ ~)
- 선물12. 박해공격으로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100\$ (120,000₩~)

참여안내 "후원자님이 지정하신대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1. 후원항목을 원하시는대로 선택하세요 (다중선택가능)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해주세요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 전화(02-596 - 3171/010-7548-3171)또는 메일(odsk@opendoors.or.kr)로 신청내역을 알려주세요.
4. 매월 자동이체(CMS)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번호: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주소:	-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서명: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번호 13자리를 꼭 기입해주세요.

위 표를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 보내실 곳 : 010-7548-3171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계 3:2)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Rev 3:2

YEARLY CAMPAIGN

개인 후원자 500명,
후원교회 100교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진흙속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굴이 깊을 수록 절경을 빚어 냅니다.
박해와 핍박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이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회의 운영과 개발사역을 위해
월 10,000₩ 정기후원자와
월 50,000₩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세요!

● 한국오픈도어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	전화번호	
출금계좌번호	은행		주소		
출금액	10,000원	출금일선택	<input type="radio"/> 5일 <input type="radio"/> 25일	출금동의 서명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 (010-7548-3171)

*직접 이체하실 경우 후원계좌 : 국민은행 029301-04-167093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